



1. 화재 예방을 위한 속신

화재를 막기 위한 액막이 풍속은 예로부터 개인 또는 집단으로 행해졌다. 화재를 막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다음과 같이 크게 3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다.

가. 막걸리, 소금, 쌀뜨물, 간수 뿌리기

민간에서 개인적으로 행해지는 것으로 굴뚝이나 지붕에 막걸리, 소금, 쌀뜨물, 물(간수) 등을 뿌리는 형태이다. 굴뚝이나 지붕은 화기와 직접 연결된 곳으로, 이곳을 잘 위하면 화재가 나지 않는다고 믿어 행해진 결과로 보인다. 또한 집안의 네 귀퉁이나 기둥 등에 이것들을 뿌리기도 한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1) 막걸리 붓기

충남 홍성군 서명 판교리 수룡동에서는 정월 열 나흘날 저녁에 술을 집안의 상기둥 네 귀퉁이에 조금씩 붓는다. 이렇게 하면 한 해 동안 화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믿는다.

여로부터 이어져온 불과 관련된 주술적 맥락이 풍속에는 재물과 인명을 잇어가는 화재관련 재난을 피하기 위한 개인 또는 집단 형태의 간절한 기원과 믿음이 담겨있다. 소금이나 물과 같이 불과 상극인 상징물을 이용하거나 마을 단위의 제를 올려 화기를 막고자 했던 풍속적 자연관과 속신을 통해 화재에 대한 나름대로의 방비책을 세우고자 했던 다양한 노력의 면면을 엿볼 수 있다.



(2) 물·간수 뿌리기

전북 고창에서는 정월 열 나흘날 화재예방을 위해서 솔잎으로 지붕에 물을 뿌린다. 진안에서는 간수를 대문 양쪽에 3번씩 뿌리면서 “화재막이 하자”고 외친다.

(3) 소금 뿌리기

충남과 전북 지역에서 정월 열 나흘날이나 보름에 지붕이나 집 주위, 굴뚝에 소금을 뿌려 한 해 동안 화재가 나지 않기를 바란다. 충남 예산 지역에서는 정월 열 나흘날 굴뚝에 소금을 뿌리고, 전북 전주에서는 열 나흘날 저녁에 지붕에 소금을 뿌린다. 이것을 “불막이”이라고 한다. 전북 완주군에서는 대보름날 아침 집 주위에 소금을 뿌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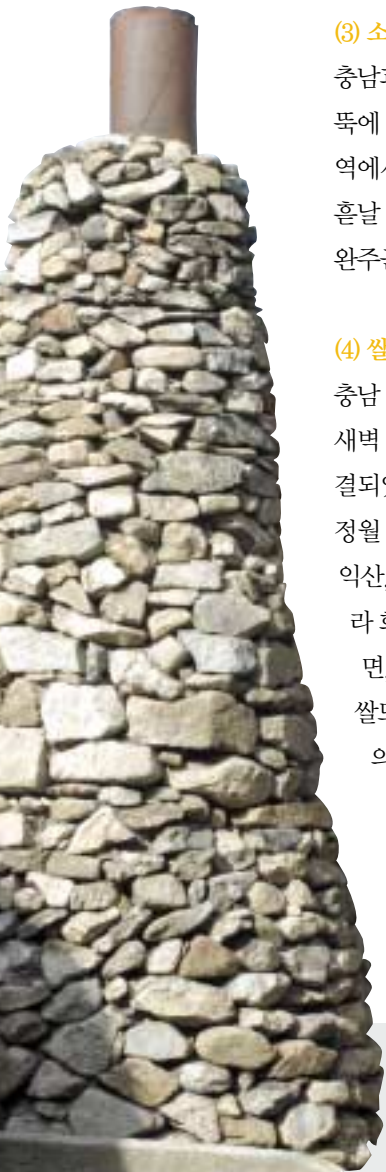


(4) 쌀뜨물 뿌리기

충남 부여, 홍성, 전북 남원, 화순, 전주, 고창, 익산 등지에서는 보름날 새벽 쌀뜨물을 뿌려 화재를 막는다. 충남 부여와 홍성에서는 화기와 직결되었다고 여기는 굴뚝에 쌀뜨물을 세 번 붓고, 전북 남원지역에서는 정월 열 나흘날 집의 네 기둥이나 지붕, 마당에 쌀뜨물을 뿌린다. 전북 익산, 진안에서는 집안 곳곳에 쌀뜨물을 뿌리기도 한다. 화재막이는 정월에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화재수가 들었다고 하면 그날 즉시 거행하기도 한다. 전북 진안군에서는 집안에 화재수가 들면, 쌀뜨물에 소금을 섞어서 지붕 위에 끼얹는다.



쌀뜨물을 담은 바가지에는 식구들이 사용하는 숟가락을 넣어 뿌리기도 하는데, 개인들이 화재의 피해를 당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다. 숟가락은 거두어서 다시 사용한다. 쌀뜨물을 뿌릴 때는 축원을 하기도 한다. 그 내용은 “1년 12달 365일 화재조심한다” “화재막이 하자, 화재막이 하자, 올 일년 화재 나지 말아라” 등 화재를 막자는 것이다. 전북 정읍 신태인읍에서는 쌀뜨물에 재와 소금, 고추 3개 등을 넣어 화재 없이 가족이 무사태평하게 해달라고 빌기도 한다.



나. 부적 등 부착



화재예방을 위한 부적을 붙이거나 상량문에 용·귀자를 쓰고, 대문에 거북이 모양의 문찌귀를 다는 것이다. 민간에서는 화기를 막기 위한 부적으로 보통 水자를 거꾸로 써서 ‘물이 쏟아지는 형상’을 나타내고, 용이나 거북[귀]이 보이는 것은 이들 동물이 수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다. 정월 보름날 새벽에 사각으로 오린 종이 가운데에 火자를 쓰고 빙 둘러 水자를 써서 갯간 등불이 나기 쉬운 집안 곳곳에 붙인다. 이를 전라도 지역에서는 “화재뱅이”라고 한다. 강원도 산간지역에서는 水자를 거꾸로 붙이기도 하는데, 이는 물이 쏟아진다는 상징적인 의미이다.

다. 제의

마을 공동체 단위에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제의를 드리는 것으로, 보통 풍수적으로 화기가 서린 마을에서 지낸다.

2. 화재 예방을 위한 제의

화재를 막기 위한 제의를 ‘불막이제’라고 부른다. ‘불막이제’는 ‘불제’·‘불막이굿’(전남 함평 손불면 대전리)·‘불액막이제’(경북 포항시 흥해읍 북송리)라고 부른다. 경북 영덕 남정면 남정리에서는 화재막이 때 간물단지에 물을 채우고 나서 간물단지를 밟아주는 행위를 하기에 ‘간물단지에 지신밟기’라고 부른다. 불막이제는 정월 보름이나 2월 1일에 지낸다.

경북 영덕에서는 정월 대보름 자정에 지내고, 포항시 흥해읍 북송리에서는 정월 대보름 달이 뜨는 오후 4~5시경에 한다. 전남 함평군 손불면 대전리에서는 음력 2월 1일 아침 일찍 지낸다. 제를 2월 1일에 지내는 것은 그름이 넘어서고 새로 시작되는 날이기에 깨끗하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전리에서는 정월 대보 당일 당산제가 끝나면 불막이제를 준비하기 시작한다.

가. 불막이제의 지역별 유래

불막이제를 지내는 지역의 공통점은 마을에 화기가 서려있다는 것이다. 불막이제를 지내게 된 몇 가지 유래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전남 함평군 손불면 대전리

옛날 어느 노승이 절터를 찾는 중 노승봉에서 내려와 수문리를 보았다. 그 터가 명당이었으나





앞산 마루에 화기가 있어 안타까워하였다. 그리고 노승산으로 올라가는 고개에 낭떠러지가 있는 것을 보고 절터 찾기를 포기하고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때 마을의 한 노인을 만나 “이 마을은 계속 번창할 것이나 화재가 많은 것이 염려되고, 계곡에서 자살하는 사람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알려 주었다. 이 말을 들은 노인은 노승에게 액막이 하는 방법을 물었고, 노승은 “화기는 막을 수 있지만 낭떠러지는 어찌할 수 없다”고 가르쳐 주었다. 노인은 화기 막는 방법을 가르쳐주면, 낭떠러지는 차차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을 하였다. 노승은 마을 건너편을 가리키며, “저기 보이는 수문(水門) 위의 등허리에 향아리 셋을 묻되, 그 향아리에 바닷물과 우물물을 반반씩 넣어 가득 채우고 꼭 봉한 후에 흙을 덮어서 무덤처럼 해두었다가 불이 나거든 열어 보라”고 가르쳐 주었다. 이 말을 들은 노인은 마을회의를 열어 이 사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고, 물향아리를 사오는 일은 ‘윗대미(윗마을)가, 뚜껑을 만드는 일은 ‘아랫대미(아랫마을)가, 향아리를 묻는 일은 ‘동그대미(중간마을)’가 맡기로 정하였다. 정월 대보름 당제가 끝나고 좋은 날을 가려 향아리를 묻었다.



그 후 동그대미에서 불이 나 열어보니 가운데 향아리만 물이 없어졌으며, 아무리 살펴봐도 깨진 곳이 없었다. 다시 물을 채우고 묻어 두었다가 아랫마을에서 불이 나 열어보니 역시 아래쪽 향아리만 물이 없어졌다. 윗마을에서 불이나 열어보았을 때 윗향아리만 물이 없어진 것을 보고, 마을 사람들은 비로소 동쪽의 제일 윗향아리가 ‘윗대미’, 가운데 것이 ‘동그대미’, 아랫것이 ‘아랫대미’ 것임을 알게 되었다. 이 중의 향아리 물이 없어지면 그 향아리와 관계된 마을에 불이 난다고 믿게 되었다. 향아리에 물이 채워지면서 불이 나는 횟수가 줄어들게 되었다.

한편, 노승이 말한 것처럼 노승봉 낭떠러지에서 사람들이 떨어져 죽거나 병신이 되는 사례가 빈번하자 마을에서 낭떠러지 입구를 막아 사람의 통행을 금지시키게 되었다. 결국 낭떠러지 문제를 해결한 셈이 된 것이다.

(2) 경북 포항시 흥해읍 북송리

조선 철종 때 마을이 전소될 정도의 큰 화재가 일어났다. 그 이후에도 잦은 화재로 주민들이 대대로 불안에 떨었고 어느 날 근심을 하던 마을에 한 유명한 지관이 나타나 ‘화란(火亂)’의 원인과 대응책을 가르쳐주었다. 지관의 말로는 이 마을의 앞산이 나무가 울창하여 잘 보이지 않지만 나무를 제거하고 산 모양을 보면 ‘화(火)’자의 형상을 띠고 있어서 화재가 많이 발생한 것이라 하였다. 게다가 불이 한 번 나면 반드시 ‘삼밭’ 한 다음에야 그친다고 했다. 그 대책으로 산 정상에 구덩이를 파고 간수를 묻으면 산으로부터 시작되는 화기를 잠재울 수 있다고 했다. 마을 사람들은 지관의 권유에 따라 앞산에 구덩이를 파고 호리병을 묻고, 그 묻어 놓은 호리병에 간수를 부은 다음 제를 올리는 풍습을 행하기 시작하였다.

(3) 경북 영덕군 남정면 남정리

남정마을은 예로부터 원인 모를 큰 불이 나서 피해가 심했다. 게다가 가뭄마저 자주 들어 농사는 늘상 흉작이었다. 하루는 풍수사가 이 마을을 지나다가 화재와 가뭄의 원인을 마을 앞에 火山이 비치기 때문이니 이를 막기 위해서는 화산이 비치는 앞산에 간돌단지를 묻고 항상 물이 마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알려주었다. 마을 사람들은 풍수사가 지정해 준 세 곳에 단지를 묻어주고 음력 정월 열 나흘날이면 간물을 채우게 되었다. 그로부터 화재도 줄고 가뭄도 해소되었다.

나. 제의 준비과정

제의 준비과정은 어느 마을제사가 그러하듯이 제관을 선정하고 금줄을 두르는 것이 일반적인 행위이다. 그러나 불막이제에서 보이는 독특한 것이 바닷물과 우물물을 길어 오는 일이다. 대전리의 경우 바닷물을 길러 오는 일은 마을에서 힘쓰는 젊은이들의 몫이다. 물론 젊은이 가운데 깨끗한 사람을 선정한다. 대전리에서 바닷가까지는 4km 정도 떨어져 있으며, 2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물지게를 지고 두 사람이 새벽에 물을 뜨러 갔다. 두 사람이 가는 이유는 교대로 물지게를 지기 위함이다. 그러나 경운기와 트럭이 등장하면서 물을 운반하는 것은 그것들로 대체되었다. 바닷물은 탁하면 안되기 때문에 바다 중간에 들어가 깨끗한 물을 퍼 온다. 두 동이의 물이면 불막이제에 쓰고도 남는데, 물 한 동이의 양은 두 말 정도이다. 우물물은 마을에서 제일 먼저 생긴 웃샘의 물을 쓴다. 물을 뜨러 가기 전에 사람들은 목욕을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한다.

제물은 대전리의 경우 돼지머리, 삼색과일, 백설기시루, 포, 도라지, 고사리, 무채, 청주 등을 놓는데, 들어가는 경비는 당산제 줄다리기때 수렴한 돈으로 충당한다. 북송리의 경우 마른 오징어, 삼색과일, 소주 등 간소하다. 제의 진행은 풍물을 치면서 제사터로의 이동을 시작으로 간수물을 담은 항아리를 꺼내서 확인하고, 물을 보충하고, 항아리를 묻고, 제사지내기 순서로 이루어진다.

북송리에서는 마을이장과 풍물패가 풍악을 치면서 해발 70m 정도 되는 앞산에 오르는데, 일단 산에 올라가 간수병이 묻혀 있는 곳의 간수병(아가리 좁은 4l 정도의 병)을 파내어 솔잎 뭉치로 만든 병마개를 열고 깨끗하고 곧은 나뭇가지를 넣어 나뭇가지에 간수가 묻어 있는 흔적을 보고 남은 간수의 양을 측정한다. 병 안에 물이 줄어 들었으면 물을 보충하고, 제사를 지낸다. 사람들은 간수의 물이 많이 줄었을 경우 앞으로 시절이 좋지 않을 것으로 믿고 특별히 행동을 조심한다. 제사는 간수병을 중심으로 남쪽에 제물을 진설하고 제관이 술을 올리면서 시작된다. 그리고는 생솔잎으로 병 주둥이를 막고 주둥이를 검정색 비닐로 싸맨 후 흙을 덮고 발로 다진 후 떼(잔디)를 입힌다. 의식이 계속되는 동안 풍물을 치는데, 간수병을 완전히 묻고 제관은 다시 재배하면서 '아무 재앙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하고 축원을 한다. 축원이 끝나면 이장은 마을 쪽을 향하여 재배하는



데 이때 풍물패들도 풍물을 치면서 마을을 향해 구부려 절하고 하산한다.

대전리에서는 세 개의 향아리가 문혀 있는 '진등'이라는 곳으로 제관과 풍물패가 이동한 후 윗마을에서 아랫마을에 해당하는 물향아리를 순서대로 열어본다. 물이 줄어든 향아리에는 미리 준비한 바닷물과 우물물을 반반씩 섞어 채운다. 그리고 돌로 된 뚜껑을 덮고 그 위에 흙을 덮는다. 향아리는 각각 넉 되의 물이 들어가는 크기로서, 1m 간격으로 문혀 있으며 그 위로 70cm 가량 흙으로 덮는다. 그런 다음 유교식 제복을 입은 제관들이 제사를 지낸다. 축문은 제사가 끝나면 불에 태워 버린다. 제사가 끝나면 그 자리에서 음복을 하고, 마을로 돌아온다. 축문의 내용은 천지의 모든 신에게 마을의 평안을 비는 내용이다.

3. 화재 예방 풍속과 그 의의

화재는 한꺼번에 큰 재물과 인명을 앗아갈 수 있는 무서운 존재이다. 그러기에 궁궐이나 절, 민간에서는 불기운(火氣)을 막기 위해 나름대로 주술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조선왕조는 궁궐의 화재 발생을 관악산의 화기 때문이라고 보고, 궁궐 앞에는 해태상을, 남대문에는 승례문(崇禮門)이라고 적은 현판을 세로로 건 사실은 잘 알려진 바이다. 승례문의 禮자는 오행 중 火에 해당하고, 세로로 문구를 쓴 것은 불꽃이 타오르는 모습이기에 결국 불로써 불을 막으려는 주술적인 행위이다. 마을에 세운 솟대에 물새를 올리는 이유도 마을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하나의 사례이다.

절이나 민간에서도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소금이나 물과 같은 상징물을 이용한다. 경상도 청도의 운문사에서 1월 20일 경에 소금을 담은 단지를 불당 뒤에 묻으며, 해인사에서 절경내 주위 여러 곳에 소금단지를 묻어 절 앞 화산(火山)의 화기를 누른다. 민간에서도 간수를 땅에 묻어 마을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제의를 행한다. 불막이제는 풍수지리적인 자연관을 이용하여 화재를 막으려는 속신이다.

화재막이에 쓰이는 소금은 바닷물의 결정체로서 거대한 물을 의미하여, 물과 불이 상극(水火相剋)이라는 이치를 이용해 불을 막으려고 한 것이다. 민간에서 기둥에 水자를 거꾸로 붙여 화기를 누르고자 한 것도 수화상록(水火相剋)의 단편적인 예이다. 상량문에 용(龍)자나 귀(龜)자를 쓰는 것과 문짜귀를 거북 모양으로 만드는 것도 이들 동물이 수신(水神)적 존재이기에 집에 화재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다.

불막이제는 과거 마을에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였거나 풍수적으로 화기가 서려 있다는 마을에서 행하고 있다. 간수를 담은 단지의 물은 용을 상징하며, 수신인 용의 힘으로 화재를 막으려는 것이다. 그러기에 간물단지에 간물을 채우는 것은 용신의 신성력을 담는 것이며, 간물 자체가 용신일 수 있다. 정해진 날 깨끗한 곳에서 간물을 뜨거나 간물단지가 문혀 있는 자리에 함부로 갈 수 없는 것도 신이 깃든 장소이기 때문이다.

민간에서는 불기운을 막겠다는 속신으로 소금, 바닷물, 물, 술 등 불과 상극인 물의 성질을 가진 물질들을 이용해 마을의 화기를 막으려고 한 것이다. 이것들을 뿌리는 행위는 화재를 진압하는 의미이며, 지붕에 주로 뿌리는 것은 예전에 초가지붕이 불에 잘 탔기 때문이다. ㉞

